

6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해보니

#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고 영·수 비슷

국어 10년새 가장 어려워...올 수능 변별력 확보될 듯

전문가 "새로운 문제 적응력 키우고 공부 깊이 넓혀야"

## 9월 1일 모평 '주목'

을 11월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어는 어렵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41점으로 집계돼 지난해 수능(A형 134점, B형 136점)에 견줘 높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국어 영역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다. 입시업체들 사이에서는 "2005학년도 수능 이후 표준점수가 가장 높다", "최근 10여 년 간의 수능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A/B형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통시험으로 바뀌어 출제 유형의 변화가 생긴 점도 학생들의 체감 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모의평가가 본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고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 영역별 응시 유형을 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입시 전문가들은 변화의 흐름과 방향 등을 파악해 공부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학과 영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기형 126점·나형 139점), 영어 136점 등으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만점자 비율도 영어를 제외하면 모두 줄었다.

반면, 한국사의 경우 필수 응시 과목에 따른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28.95%. 응시자 3명 가운데 1명은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입시 현장의 관측이다.

과학 탐구에서는 물리 II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82점)으로 수능(63점)보다 19점 상승했고 생명과학 II와 지구과학 II 과목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의평가 이후는 어떻게=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영역별 난이도를 선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변별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수능처럼 '물수능'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광재 송덕고 진로진학담당부장은 "6월 모의평가에서 새로 출제된 문제 유형

### ■ 영역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	국어		수학 기형		수학 나형		영어	
	등급 구분 점수	비율(%)						
1	131	4.50	123	5.57	133	4.74	130	4.45
2	124	7.67	120	10.13	127	8.13	125	6.80
3	116	12.33	117	10.70	119	12.82	117	13.29
4	107	16.94	110	18.97	106	16.29	108	17.06
5	97	18.79	102	15.49	90	19.05	97	18.81
6	85	17.24	85	16.16	80	16.34	83	17.82
7	71	11.93	67	12.56	75	12.40	70	11.28
8	61	7.08	58	6.72	74	6.66	65	6.60
9	61 미만	3.52	58 미만	3.70	74 미만	3.57	65 미만	3.90

### ■ 6월 모의평가·2016학년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비교

영역	2016 수능	2017 6월 모·평
	국어	A형 134 B형 136 기형(B형) 127
수학	나형(A형) 139 영어 136	139 136

### ■ 6월 모의평가·2016학년도 수능 영역별 만점자비율 비교(%)

영역	2016 수능	2017 6월 모·평
	국어	A형 0.80 B형 0.30 기형(B형) 1.66
수학	나형(A형) 0.31 영어 0.48	0.15 0.57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을 파악, 적응력을 키우는 한편,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깊이 있는 공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실장도 "6월 모·평으로 정시에서 지원가능 대학을 예측한 후에 그에 걸맞은 수시지원 대학과 전형형을 선택하는 만큼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 장·단점을 보완하는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9월 모의평가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9월 1일 '201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에서 70% 수준으로 연계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개인별 성적표 지표는 9월 27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달뜨기 21:51  
해질 19:50 달지기 07:49

‘후텁지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1/30	보성	구름많음	19/26
목포	구름많음	20/27	순천	구름많음	20/28
여수	구름많음	21/26	영광	구름많음	19/29
나주	구름많음	20/30	진도	구름많음	20/26
완도	구름많음	21/26	전주	구름많음	21/31
구례	구름많음	19/29	군산	구름많음	21/26
강진	구름많음	20/27	남원	구름많음	19/29
해남	구름많음	20/27	홍산도	구름많음	18/24
장성	구름많음	20/27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동~동	0.5~1.5	남동~남	0.5~1.0
남부	안바다	북동~동	1.0~2.0	남동~남	1.0~1.5
남해	안바다(동)	남~남서	1.5~2.5	남동~남	0.5~1.5
서부	안바다(서)	북동~동	1.5~2.5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	☁	☁	☁	☁	☁	☁
22/26	21/28	22/28	22/26	21/27	21/28	22/27

## 온난화에 태풍 실종...한반도 올 1개 영향권

올 들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월 태풍이 없었던 사례는 1951년 이후 1973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기상청 태풍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북서태평양 해역이 고 수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해에는 태풍 강도가 세지는 반면 발생 횟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차가운 해에는 발생 빈도는 높아지는 반면 강도가 약해진다. 결론적으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태풍 세기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30년(1981~2010년) 해마다 발

생한 태풍은 평균 25.6개였지만 최근 10년(2001~2010년) 동안에 23개로 2.6개 줄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도 3.1개에서 2.5개로 줄어들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6~9월)의 경우 태풍이 북서태평양에서 7~10개 발생해 이 가운데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평년의 경우 태풍은 11개 정도가 생겨 2.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21~22일 내린 누적강수량은 금일(완도) 106.5mm를 최고로, 도화(고흥) 55mm, 초도(여수) 53mm, 하의도(신안) 41.5mm, 목포 20.6mm, 광주 12.1mm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예비군 훈련중 휴대전화 사용시 강제 퇴소

### 입소 늦으면 불참 처리

예비군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적발되면 강제 퇴소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까지 동원 예비군훈련 도중 강제 퇴소자가 총 456명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강제 퇴소자 331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국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예비군 훈련 기간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강제 퇴소자 대부분은 훈련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알려졌다. 훈련장 입소 규율도 더 엄격해졌다. 군은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 어린이집 휴원 연기

'맞춤형 보육'에 반발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이 23~24일 집단 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집단 휴원으로 인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부분 휴원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23~24일 예고된 집단 휴원을 연기하고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지켜 볼 예정이다. 송연경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26일까지 복지부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와 휴원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으로 학부모나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남어린이집연합회도 집단 휴원 대신 등원하는 원생 수에 맞춰 일부 교사만 근무하는 부분 휴원을 택했다. 또 일부 원장과 교사는 내일 무안 남악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경민기자kki@



"나처럼 해봐요"

22일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린 '에너지절약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어린이들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com

#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추증, 척추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